

환경부, 화학산업 CEO 간담회 4월23일 개최

환경부가 4월23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화학산업계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전지구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2008년 6월부터 시작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화학산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감축의무(Post-2012 체제) 대비 능동적 협상전략과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및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등 감축 노력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EU REACH 대응과 관련해서는 12월1일까지 REACH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 EU 수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기업 전수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만의 장관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추진 계획과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방향을 설명하고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화학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4/21>